

민 성 래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 작품연구논문

아기의 형태를 통한 풍자적 표현에 관한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201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송 민 선

아기의 형태를 통한 풍자적 표현에 관한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민 성 래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송 민 선

인 준 서

송민선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의원 _____ (인)

심사의원 _____ (인)

심사의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본 연구는 ‘다르게 보기’라는 제목으로 전시된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하였다. 본인의 작품은 불합리한 사회를 살아가는 어른들의 모습을 유아의 세계를 통해 풍자적으로 표현되었다.

이론적 분석방법으로 사회적 배경과 풍자적 배경을 나누어 보았다. 사회적 배경으로는 권력·문화적 편견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본인작품의 풍자적 형식을 연구하기 위해 가면극의 형식과 작품에 풍자적 표현을 사용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고찰하여 연구하였다.

본인의 풍자적 표현은 총 네 가지로 분리되어 작품으로 표현되었는데, 첫째는 권력적 욕망, 둘째는 문화적·인종적 편견, 셋째는 일상생활의 이면, 넷째는 어른들의 과욕·힘든 현실·문화적인 차별성을 비판하고자 하는 점을 나타내었다.

본인 작품의 조형적 분석으로는 작품에서 표현되어진 인체의 특징을 과장된 비율·무성(無性)·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몸과 눈의 흑백으로 대비되는 색과 커다란 눈을 통해 시선이 강조되어 이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연출에 관한 사물들의 표현은 연극적 방법인 소외효과를 분석하여 그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본인의 작품을 연구하여 작품관을 확실하게 하고 향후에 작업을 보완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 논문은 “아기의 형태를 통한 풍자적 표현”이란 주제를 갖고 연구한 논문으로 총 3장으로 구성되었다.

제 1장 서론에는 본인의 작품에 대해 연구 목적과 연구내용 및 방법을 설명하였다.

제 2장 본론에서는 내용적 배경과 조형적 특성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작품의

바탕이 되는 사회적 배경으로 권력·문화적 편견의 문제점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풍자적으로 표현된 한국의 가면극과 다른 작가의 작품을 비교하여 본인의 풍자관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인 작품의 표현 방식으로 인체의 조형적 특성이 가지고 있는 형태와 흰색과 시선으로 표현되어진 의미를 서술하였으며, 제작의도를 연구 분석 하였다.

제 3장 결론에서는 본인의 작품을 조형적 분석을 통하여 본 논문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연구방법과 발전적인 방법으로 서술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II. 본론	3
1. 연구작품의 내용적 배경	3
1) 사회적 배경	3
2) 풍자적인 한국 가면극의 형식	6
3) 풍자적 표현의 작가들	9
2. 연구작품의 조형적 분석	11
1) 인체표현의 특성	11
2) 강조된 시선	14
3) 연극에서의 소외효과	16
3. 작품분석	20
III. 결론	39

참고도판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애(愛)당 142x52x95(cm) FRP 우레탄도색 나무 2013	20
【작품 2】 어떤소리 40x20x23cm FRP 우레탄도색 헤드셋 음향기기 2013	23
【작품 3】 바라보기 40x18x23cm FRP 우레탄도색 나무 가죽천 형광등 2013	26
【작품 4】 am8(오전8시) 22x49x72(cm) FRP 락카페인트 마천석 2013	28
【작품 5】 in the mirror 23x25x30cm FRP 에나멜도색 거울 2012	31
【작품 6】 바라본다는 것 II 45x25x24(cm) FRP 에나멜도색 PVC파이프 볼록렌즈 2011	34
【작품 7】 Hi 힐 200x80x100(cm) FRP 우레탄도색 2013	36

I. 서론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소외로부터 오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정서적인 공감의 유대를 갈구함과 동시에 어떤 질서에 귀속되기를 원하다. 그리고 지배자는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보존·증대시키려 한다. 이는 국가 간의 문화적·인종적 편견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이 과정 중 권력집단을 따르는 지식인들에 의해 잘못된 것들이 정당화되어 당연시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본인의 작업은 이와 같은 현실에 관한 문제인식으로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논제는 이와 같은 현실에 관한 문제인식으로 시작하였으며, 고정된 사회의 현실을 다른 시각으로 제시하고, 본인의 작품에 관하여 풍자적 표현을 연구하는데 의의를 둔다.

본인의 작품은 사람사이의 이치에 맞지 않는 현실의 한 장면을 거리를 두고 보게 하고자 그 상황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 아기의 형태로 재현하여 조형화하였다. 어른이 아닌, 어린 아기로 대체되어진 사회의 불합리한 삶을 풍자한 작품은 관람자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 상황을 낯선 태도를 갖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작품 표현에 대하여 분석하고 향후에 작업을 보완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본 연구내용 및 방법으로는 불합리한 사회를 살아가는 어른들의 모습을 유아의 세계를 통해 풍자함으로써 고정관념이 되어버린 구 정치와 사회의 갈등 요소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보이하고자 하였다.

첫째, 연구작품의 사회적 배경과 풍자적 표현에 대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본인의 작품표현에 대해 연구하여 아기를 표현하고자 한

의미를 확실하게 밝히고자 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표현매체인 인체표현의 조형적 특성과 시선이 가지는 의미를 알아보고, 현실의 풍자적 재현에 용이한 연출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셋째, 본인의 작품을 제작방법과 내용으로 나뉘어 기술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향후 작업과제를 도출해 내는데 의의가 있다.

II. 본 론

1. 연구작품의 내용적 배경

1) 사회적 배경

본인의 작품은 ‘다르게 보기’라는 제목으로 전시 되었는데, 사회의 문제점을 다르게 보려는 의도가 담겼다.

사회는 개인과 집단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로서 집단을 이루고 국가를 형성한다. 그로 인해 사람과 국가간의 서로 필요조건으로 질서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이런 규율 속에 살아간다. 이렇게 만들어진 규율들은 권리와 형평성을 지켜주고 사회의 도덕·윤리적인 중심이 되어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회형성 과정에서 생겨난 지배자들은 규율을 권력화하여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인들의 이론들은 지배자를 옹호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진 이론들은 부조리한 것조차 인정 되어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러한 것을 몇몇은 알면서도 방관하고, 몇몇은 문제인식조차 하지 못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행복하다는 말을 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참여적 입장에서 비판의식을 갖고 작업에 임하였다.

본인의 풍자적 표현은 총 네 가지로 분리되어 작품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권력적 욕망, 둘째는 문화적·인종적 편견, 셋째는 일상생활의 이면, 넷째는 과욕·힘든 현실·문화적인 차별성을 비판하고자 하였다.

첫째, 본인이 갖는 권력적 욕망의 부정적인 시선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정치인들이 싸우는 모습을 바라본 것에서 시작되었다. 2013년 1월 16일 <시사저널>은 미디어리서치에서 정치 개혁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국회의원의 이미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관한 조사가 있었다. 그 결과로 ‘싸움꾼’이 28.6%로 압도적 1위로 나타났다. 나머지 ‘기득권(패거리)’(8.0%)은 4위, ‘권위주의’(6.3%)는 6위, ‘비(非)신뢰 집단(거짓말)’(5.4%)은 8위, ‘무능’(1.4%)은 18위로 각각 나타났다. 반면 당초 긍정적 이미지로 실제 대답이 나온 것으로는 16위에 오른 ‘일꾼’(2.0%)이 그나마 가장 많았다. ‘엘리트(지도층)’는 0.9%, ‘책임감’은 0.1% 수준에 그쳤다. ‘소통’과 ‘원칙·소신’에는 단 한 명의 응답자도 없었다. 오히려 ‘비소통’이 0.4%, ‘무소신’이 0.3%로 각각 나타났다. 지금의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신이 가득한 눈높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¹⁾ 긍정적 이미지로 꼽히는 대답들은 사람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의 지도자일 것이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권력은 비 이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2010년 12월 8일 오후 한나라당이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단독처리를 시도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민주당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하였고, 급기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 TV를 통하여 전파를 뒀었다. 국회의원들의 싸움은 이전 2007년에 ‘BBK 특검법’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한 적이 있었고, 또 그 이전 2005년에 여야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본회의장에서 양당 의원들이 뒤엉킨 채 욕설과 고성을 주고받는 일도 있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싸우는 일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부끄럽

1) <국회의원 하면 떠오르는 첫 이미지는 “싸움꾼”>, 시사저널:미디어리서치, 2013.01.16

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국회의원들의 싸우는 모습을 아기들이 장난하는 모습으로 대체되어져 【작품 1】 애(愛)당으로 풍자하여 표현되었다.

둘째, 민족국가의 설립이 확산되면서 국경에 대한 분쟁이 가열되기 시작하였는데, 대부분의 신생국들은 인종적으로 혼합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그 땅에서 거주하는 가장 지배적인 권력주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민족들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족문제가 항상 제기될 소지를 갖고 있었다. 최근 각 민족 나름대로의 고유한 문화적 잣대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문화적 상대주의적 태도가 점차 일반화되어지는 것 같지만, 한국 사회에서도 역시 서구가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퍼뜨린 문화적·인종적 편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한국보다 덜 발전된 민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인 시각을 갖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²⁾ 본인은 이러한 인종적 차별과 앞에서 언급했던 정치적 모순에 대한 사회적 관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작품 5】 in the mirror와 【작품 6】 바라본다는 것 II는 같이 전시된 흰색으로 도색된 작품들과는 달리 흑갈색으로 도색되었는데, 이는 인종차별에 관하여 대표적인 색으로서 사용되어 인종문제를 부각 시키려 하려하였다.

셋째, 대중교통인 버스나 지하철을 연상시키는 공간으로 표현되어졌는데, 이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작되는 일상의 반복을 상징한다. 학생은 수업시간에 맞춰 직장인은 업무시간에 맞춰 각자의 일을 하기 위해 같은 시간에 한 공간으로 몰려든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오전8시는 ‘마의 시간’으로 불리기도 한다. 사람은 사회에 존속되려하며 사회에서 주워지는 규율 속에 살아간다. 본인의 작품은 갑갑하고, 힘든 삶을 다른 각도로 표현함으로써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유도하였다. 【작품 4】 am8 (오전8시)는 다른 작품들과 달리 사회의 큰 틀이 아닌 일상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힘겨운 삶을 다루어 표현하였다.

2) 유병선 지음, 「현대사회의 이데올로기와 한국」, 대전:이화, 2004, p.51,53,54

예술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이고, 우리 사회 구조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까? 예술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인간 활동이다. 한 사람이 의식적으로 어떤 외적인 기호를 통해 자신이 살면서 느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거기에 동조된 사람들은 같은 감정을 체험하다. 그것은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다. 톨스토이는 예술가가 감정 표현뿐만 아니라 그것의 전달에도 성공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예술이라면, 예술은 가장 소박한 농민도 감상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이해되어야 한다. 예술의 진정한 역할은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인들이 완전하게 실현했던 것이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연극의 목적이 우리의 정서를 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때, 그가 의미한 예술의 역할도 이와 같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술의 궁극적 가치는 개인·시대·환경을 초월한다. 그리고 예술가가 직관력으로 파악한 이상적인 균형과 조화를 표현한다. 예술가는 시대 환경에 따라 자기 손에 놓인 여러 재료를 사용해 직관적으로 표현한다.³⁾ 또한 본인은 예술이 시대의 흐름에 반(反)하여 현 사회를 비판의 역할로도 보았다. 예술을 통하여 사람들의 사회적 관점을 바꿀 수 있고, 관점을 달리한다면 그것은 사회가 변화를 시작하게 되는 지점이 될 것이다. 이를 시각적 표현에 대한 모색에서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2) 풍자적인 한국 가면극의 형식

시각적 표현에 대한 모색으로 본인의 작품은 어른들의 모습을 아기의 모습으로 대체 되어졌다. 이는 아기들의 귀여운 모습으로 표현되어졌지만, 작품이 나타내고자하는 내용들은 결코 귀여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른들의 과욕·

3) 리드 하버트 지음, 임산 옮김, 「예술의 의미」, 서울: 예코리브르, 2006, p.284,289,292

힘든 현실·문화적인 선입견을 비판하고자 하는 점을 나타내었다. 이렇듯 본인 작품에서 드러나는 풍자적인 성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한국의 가면극이 갖는 풍자적 형식과 연결하여 분석하려한다.

먼저 분석에 앞서 풍자의 정의를 되짚고자 한다. 풍자(諷刺)란, “남의 결점을 다른 것에 빗대어 비웃으면서 폭로하고 공격함.”라고도 하고, “문학 작품 따위에서,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빗대어 비웃으면서 씬.”라고 한다.⁴⁾ 이런 정의는 조금이라도 정의라 하기에는 너무나 모호하게 여겨질 것이다. 풍자는 역시 가벼운 비웃음에도 적용되기 때문이었다. 풍자에 대한 현대적 정의는 대개 다음의 두 개의 용어를 결합하고 있다. 환상(Fantasy)이나 기괴함(grotesque) 혹은 부조리함을 기반으로 한 위트나 유머라는 한 용어와 “공격 대상”이라는 다른 용어를 결합하든가, 아니면 환상과 도덕적 기준을 결합하든가 혹은 간접적 태도나 판단을 결합하는 것이다. 하나의 개념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난폭한 희극이며, 다른 개념은 도덕적 비난이다. 영향을 줄 “대상”이 의미되어 있지만 두 개 모두 태도나 어조를 나타낸다.⁵⁾

풍자는 정치적 현실과 세상 풍조, 기타 일반적으로 인간생활의 결함·악폐(惡弊)·불합리·우열(愚劣)·허위 등에 가해지는 기지 넘치는 비판적 또는 조소적(嘲笑的)인 발언을 일컫는다. 역사적으로 보면 문학 이외의 회화·영화 등에도 풍자적인 작품을 볼 수 있다.⁶⁾ 한국의 가면극은 풍자적이기도 하면서 가면으로 대체되어진 인물들은 본인의 작품에서 어른이 어린아이로 대체되어져 표현되는 형식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가면극을 논의하기에 앞서 가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의 고유어 탈은 한자어 가면(假面 혹은 面)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탈

4) 신기철, 신용철 편저, 「새우리말 큰사전(하)」, 삼성출판사, 1987, p.3576

5) 도널드 폴슨 지음, 김옥수 옮김, 「풍자문학론」, 부산 : 지평, 1992, p.14, 230

6) 김은정 지음, 「연암 박지원의 풍자정치학」, 과주:한국학술정보, 2010, p.101, 102

놀이는 가면희(戲), 가면무(舞) 혹은 가면극(劇)을 통칭한다. 일반적으로 가면을 이용한 놀이를 통칭 가면희라 하고, 가면을 이용한 본격적인 연극을 가면극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탈을 도구로 해서 노는 놀이는 모두 탈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전승연희로서 독자성을 지닌 탈놀이만을 검토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탈놀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고유한 이름을 지니지 않고 문둥이, 어덩이, 말뚝이, 쇠뚝이, 취발이, 영감, 할미, 양반, 노장, 목중(먹승) 등 연령, 신분, 직업, 외형에 따른 명사를 그대로 사용한다.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격을 반영한다. 이러한 익명성, 즉 상대적인 사회성은 그런 유형의 인물들이 살아가는 행동양상과 사고방식을, 특히 그런 삶의 역기능성을 재현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 이런 인물의 등장은 애초부터 연극적인 환상을 일으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면의 화소와 줄거리의 전개를 미리 예견케 하고, 재현된 극중 사태를 비판적 거리에서 관찰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⁷⁾

즉, 비판의 대상을 개인이 아닌 사회적 신분을 탈의 형태로 명확히 구분을 두었고, 이렇게 표현된 탈로써 극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관찰하게 하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본인의 자기표현은 그 사회의 특징적인 행동이나 사물들로 신분을 구분지어 표현하였는데, 탈만 보고도 그 이야기를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탈에는 성격 또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탈은 가면극에 사상을 나타내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가면극의 핵심인 가면을 살펴보면 그 형상이 비정상적이거나 과장된 경우가 많다. 눈, 코, 입이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눈이 빼딱하고, 눈꼬리는 사납게 찢어져 있는가 하면, 입이 심하게 비뚤어져 있기도 한다. 언청이가면, 문둥이가면, 움가면 같은 병신가면 외에도, 이마, 볼, 턱 등에 커다란 혹이 제멋대로 나 있고, 이가 어긋나게 툭니처럼 두드러져 있으며, 이마가 넓고 주름이 많아서

7) 서연호 지음, 「한국 가면극 연구」, 서울:월인, 2002, p.161, 165

얼굴 각 부위의 비례가 맞지 않는 가면도 있다. 그러면서도 모든 가면이 인간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 기괴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⁸⁾ 가면이 인간적이면서도 그 형태가 과장되어진 것은 극중의 상징성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인의 작품도 아기의 눈을 크게 과장하여 극에서 시선을 강조하여 표현함으로써 극중 관계를 분명히 하려한 의도를 보이고 있다.

3) 풍자적 표현의 작가들

본인의 작품을 연구하기에 앞서 다른 작가들의 작품이 어떻게 풍자적으로 표현되어졌는지를 조사하여 본인의 작품의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이전부터 현대까지도 예술가들은 사회의 이면을 표현하려는 시도를 계속되고 있지만 예술가들이 작품에서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점이 있다. 그래서 많은 작가들은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풍자적 방식을 선택한다. 보통, 사회비판을 다룬 작품들은 풍자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본인의 작품 또한 풍자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연극적인 재현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각가 김정민의 작품<똑똑>(도판1)을 보면 일상적인 삶의 사건을 위트 있게 풍자하여 표현되었는데 이를 연극적인 재현을 통하여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작가가 말하길 “이 작품은 남편이 금연을 했다며 저의 눈길을 피해 몰래 담배를 피우는 것을 빗댄 ‘똑 똑’은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남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어 이제는 정말 금연을 했으면 하는 아내의 바람을 담았다”⁹⁾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재현 하기위해 그 장소의 모든 것을

8) 전경옥 지음, 「한국가면극 : 그 역사와 원리」, 서울 : 열화당, 1998, p.78

표현하기 보다는 변기라는 상징적인 사물만으로도 유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인의 【작품 4】 am8 (오전8시)에서도 장소를 유추할 수 있도록 전철의 손잡이만 표현하여 재현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작품과 본인의 작품은 풍자적 대상이 어른이라는 점과 연극적인 방식으로 재현하였다는 점이 동일하였지만 표현으로서의 대상은 달랐다. 그의 표현대상은 어른 또는 가족이고 본인은 아기라는 상반된 대상인 반면, 중국의 회화작가인 탕즈강의 작품<중국 동화>(도판2)은 아기를 표현대상으로 비판적인 이야기를 다루는데 이와 같은 점이 본인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의 작품은 군사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보인다. 이는 군인가정에서 태어난 탕즈강이 2살 때부터 부대에서 생활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입대, 40대 후반까지 부대에서 지내어 집단 생활과 공동체 생활에 익숙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전쟁의 잔혹성과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감옥 생활, 베트남전 참전 등 불운도 경험했고 20여년을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었다. 탕즈강의 인생 여정 속에 ‘어린 아이들’, ‘군부대’, ‘위태로운 풍경’ 등 그의 작품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특징들이 모두 담겨있다.¹⁰⁾ 어린 시절 동화적인 결핍을 남자아이라는 소재를 통하여 동화적인 표현방식으로 중국 사회를 잔혹하게 묘사하여 비판하고자한 것이었다. 그는 어린아이 라는 상징체를 유지해 지속적으로 그 자신만의 표현으로써 나타내었다. 이렇듯 어른의 세계를 아이의 세계를 통하여 표현한 것은 본인의 표현방식이 다루기 예민한 부분을 우회적인 표현을 하는데 용이한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점은 본인과 같았지만, 그의 작품은 앞에서 말했듯이 남자아이만을 소재로 하였고, 본인의 작품은 사회적인 비판을 위해 아기를 무성(無性)으로 표현되었다. 이는 사람들이 3세 이하의 기억을 하지 못하는

9) <김경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풀어낸 라이프 스토리>, CNB저널 제239-240호, 2011.09.14

10) <中 화가 탕즈강 방한...‘꼬마로 표현된 잔혹 중국’>, 뉴시스통신사, 2008.02.19

까닭에 아직 사회와 닿지 않은 존재로써 아기를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본인의 풍자대상은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높은 지식과 지능을 갖춘 사람들, 타인을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관계속의 문화적 잣대로 인종적 편견을 불리일으키는 사회, 결코 그 지배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표현 하였다. 이는 모순된 현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풍자적인 표현방식 이었다.

2. 연구작품의 조형적 특성

1) 인체표현의 특성

보통 유아기에는 의식이란 것이 없고, 구별이라는 것을 할 수 없을 것이라 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아기들이 어른들의 행동을 따라하고 있구나 라고 느낄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유아기에 대한 기억이 없으니,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본인은 아기도 어른의 행동이 좋지 않음을 의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어른들의 행동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를 바라여 이를 풍자적인 표현으로 인체를 구성하였다.

기억이나 생각은 과거 경험에 대한 정신적 표상이다. 생각이나 기억이 의식으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어와 연결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혹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 언어와 관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다. 그런 결과로 우리는 언어가 발달하기 이전의 유아기의 경험은 기억하지 못한다.¹¹⁾ 그러나 유아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는 프로이드의

11) 켈빈 S.홀 지음, 안귀여루 옮김, 「프로이드 심리학 입문」, 서울 : 巨岩, 1990, p.72

꿈에 대해 언급한 것에서 찾을 수가 있다.

꿈을 구성하는 재료는 모두 어떤 방법으로든 체험에서 나온 것이며, 따라서 그 재료는 꿈속에서 재생되고 기억된다는 사실은 논쟁 할 여지가 없다. 재현(再現)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꿈의 원천, 깨어 있을 때의 사고 활동에서는 잘 생각도 나지 않고 쓰여 지지도 않는 재료를 꿈이 끄집어내는 경우의 하나는 유년시절의 생활이다.¹²⁾

먼저 기억에 대하여 언급했듯이, 유년시절의 경험을 꿈에서 “본다.”라는 것은 그 기억이 무의식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기억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인식을 했다는 것과 연결하여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영국의 심리학자 찰스 퍼니휴(Charles Fernyhough)는 아기심리를 다루는 책 「아기심리보고서」를 보면 3세 이전부터 아기들은 선행대상으로서 어른들을 바라보고 따라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아기가 생후2개월 무렵이 되면 측두엽 하부의 얼굴 인지능력이 충분히 발달되어, 여러 사람들의 눈·코·입을 구별 하고 학습할 수 있게 되며, 다양한 얼굴의 미묘한 차이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데, 인간의 이목구비 중에서도 눈에는 매우 특별한 힘이 있다고 한다. 이는 다른 표유류의 눈에는 흰자가 거의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눈에는 흰자가 많이 보인다. 이 밝음과 어둠의 뚜렷한 대비 덕에 신생아는 사람들이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신생아는 다른 곳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눈을 더 선호하는데, 생후 4개월 무렵의 아기는 상대가 응시하는 방향을 따라서 쳐다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쪽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무엇인가를 학습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기를 응시하는 행동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¹³⁾ 즉, 사람들이 3세 이하의 유아기를 기억

12) S.프로이트 저, 홍성표 역 14, 「꿈의 해석」, 서울:삼성출판사, 1990, p.8, 12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유아기에 어떠한 것을 의식할 수 있었다는 가정이 생기고, 그 시기에 어른들을 모방하려는 심리를 가지고 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작품에서 아기의 모방심리를 이용하여 어른들의 치부가 나타나는 행동을 표현한다면, 어른이 할 때 보다 보여 지는 파급력은 크게 다가올 것이다.

본인작품에서 표현되어진 인체의 특징은 과장된 비율, 무성(無性), 색으로 나뉘어 볼 수 가 있다.

첫째, 인체는 실제 아기의 비율 보다 극대화 되어, 머리와 눈의 크기가 과장되었다. 이는 명함 대비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아기들이 상대적으로 명도 차이가 뚜렷한 눈(시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아기의 과장된 시선으로 표현한 것이다. 눈을 크게 과장하다보니 자연스레 아기의 머리 또한 커진 것이다. 과장법으로 표현하는 내용은 외계에서 온 기괴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해학의 수단으로 접근하기 위한 표현방식이다. 본인의 이러한 과장된 표현방식은 더 귀엽고, 사랑스럽게 표현하려 했으며, 이로부터 느껴지는 어른과의 대립감을 적용시키고자 하였고, 작품의 내용을 좀 더 우회적으로 표출하려 하였다.

둘째, 아기는 무성(無性)또는 중성으로 성별을 표현하지 않았으며, 성(性)은 사회에서 주어지는 역할이라고 판단되어 표현 하지 않았다. 단, 여기서 말하는 성은 생물학적인 것을 제외한 것임을 알리고자 한다. 무성의 아기는 사회적 관례를 벗어나 본질을 보려하였으며 이 의도는 【작품 7】 Hi 힐에서 더욱 부각되어 표현되었다. 이 작품은 아기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엄마의 행동을 따라하는 모방심리를 적용한 것이다. 아기는 헐리우드 배우를 연상시키듯 한

13) 찰스 퍼니휴 지음, 고빛샘 옮김, 「아기심리보고서」, 웅진지식하우스, 2009, p.59,60

쪽 눈을 감고 윙크한 채, 입술을 내민 모습으로 형상화 하였다. 무성의 아기가 여성의 상징인 하이힐을 신고 있다는 것은 지금은 성에 대한 구별을 하지 않으나 그 후에 성이라는 틀 속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아기의 인체는 주로 흰색으로 도색되었다. 흰색의 사전적 정의는 흰색, 백색, 또는 백색 도료의 ‘순배의’ 또는 ‘누구의 죄를 벗기다’ 등 순결이나 품종의 깨끗함을 강조하는 뜻이 대부분이다. 동양에서의 흰색은 방향, 절기와 함께 순결, 순수, 청렴 등을 상징하고, 서양에서는 성직자의 흰색 의상 또한 군수와 성결(聖潔) 등을 의미하며, 성혼식장의 장식이나 신부의 드레스도 흰색이 대부분이다. 또한 죄가 되지 않는 선의(善意)의 거짓말을 하얀 거짓말(a white)이라 부른다.¹⁴⁾ 그래서 쉽게 물들고, 더럽혀지는 색이기도 하다. 이는 본인의 표현 주제인 아기 또한 이와 유사하다. 아기도 흰색처럼 순수한 만큼 다른 색으로 물들기 쉽다. 이렇듯 본인의 작품에서 표현된 어른들의 사회는 아기에게 어떠한 것이든 쉽게 미칠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하였다.

2) 강조된 시선

본인작품에서 표현된 아기의 눈과 몸은 각각 검정색과 하얀색으로 표현되어졌다. 흑과 백의 뚜렷한 경계로 인하여 시선은 더 강조되어 느껴진다. 대비되는 색과 커다란 눈은 시선을 강조하여 풍자적 표현에 더 큰 힘을 실어준다.

시선은 원근법적으로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관찰자의 감성이 자극되어 읽혀지기도 하는데, 베르메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보면 다가오는 시선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 오는 것은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각자

14) 나지영, 박현주, 「흰색의 의미와 적용에 대한 기초 연구」, 한국 콘텐츠학회, Vol.10 No.2, 2010, p.2

그 유혹의 재료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고전주의에서 바로크의 사물을 인식하는 것의 변화에서 볼 수 있는데, 고전주의적 해법은 생물학적으로 인식되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에 있었고, 여기에는 어떠한 개념적인 확장이나 간접성이 허용되지 않은 반면, 바로크는 대상을 직역하지 않았다. 사물과 관찰자 사이에 어떤 또 하나의 세계가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상자체가 관찰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요인에 의해 하나의 의도를 지니게 된다고 보았다. 이 의도는 관찰자에게 어떻게 인식될 것인가에 대한 자기 본성을 유형화하였다.¹⁵⁾ 즉, 작가는 작품에서의 시선을 나타낼 때에는 관람자가 이 시선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선은 타자와의 관계이고, 나와 세계를 맺어주는 기본적인 매체이다. 따라서 시선이 인간관계의 기본인 권력관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¹⁶⁾ 사전에서 시선의 의미는 눈이 가는 길. 또는 눈의 방향을 말한다. 본인의 작품에서 아기들의 눈은 크고 맑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시선은 망원경으로 다른 이 또는 다른 곳을 향하기도 하고, 서로를 의식하기도 하며, 거울을 통하여 다른 세계를 상상하기도 한다. 또한, 그러한 시선은 관객의 시선과 마주하게 된다. 【작품6】 바라본다는 것 II는 어른의 키에 맞추어 시선을 마주칠 수 있게 설치하였다. 이 작품은 아기가 망원경을 통해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형상으로 되어있는데, 반대로 관람자가 망원경을 통해 아기의 눈과 마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아기의 눈은 관람자인 자신을 관찰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시선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기는 관람자 또는 그 공간을 관찰 하는 것 일수도 있고, 더 확대하여 사회를 관찰한다는 의미를

15) 한명식 지음, 「예술을 읽는 9가지 시선:형태로 이해하는 문화와 예술의 본질」, 파주:청아, 2011, p.207,208,212

16) 박정자 지음, 「시선은 권력이다」, 서울:기과랑, 2008, p.6

갖는다. 【작품 5】 in the mirror는 흑인아기가 거울 안에 아기와 손을 데고 앉았는데 이 작품을 감상할 때 가까이 다가가서 관찰하게 되면서 그 거울 안에 시선을 같이 하게 되기도 하였다. 여기서 아기에게 거울 속은 현실과는 다른 세계를 의미하며, 그 세계의 시선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세계는 곧 닥칠 문화적 편견 문제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관람객도 그 거울 안에 비춰지는 것은 그들도 그 세계와 무관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 4】 am8 (오전8시)은 봄비는 시간의 지하철을 연출하여 표현하였는데, 3명의 아기의 눈은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며 바라보는 모습이다. 한명은 지하철 손잡이에 매달려 옆을 결눈질로 바라보고, 또 한명은 다른 이에게 떠밀린 듯 몸이 밀착되어 그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들 사이에 있는 나머지 한명은 정면을 주시하고 관객과 시선을 마주하게 하였다. 이 또한, 관객도 이 상황과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여 나타내는 것이었다.

즉, 본인작품에서 시선은 미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람객과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작품이 소통하는 매개로서 타인과 나 또는 나와 세계를 맺어 주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3) 연극에서의 소외효과

사실주의 연극은 철저한 고증에 의한 삶의 재현을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는데, 19세기 중엽부터 사실주의는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 즉 실증에 의한 삶의 모습을 재현하려 했다. 그러다 보니 장치도 현실 생활에 있을 법한 배경으로 이루어졌다.¹⁷⁾

본인 또한 현실을 재현하기 위한 장치로써 일상 속의 사물인 TV·소파·

17) 안민수 지음, 「연극연출:원리와 기술」, 서울:집문당, 2000, p.47

망원경·헤드셋·전철의 손잡이 등을 이용하여 그 상황들을 연출하였는데, 연극에서는 장치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와 소외효과를 알아보고, 본인의 작품에 어떻게 적용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극에서의 무대 장치는 극적 행동을 발전시켜 나가고 극의 예술적 특성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극의 이해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극의 주제와 전체적인 효과를 효율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장치 요소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조화·균형·비율·강조·리듬으로 나뉘어 볼 수 가있는데, 이 중에 3가지만 다루도록 하겠다. 조화란 한 작품 속에서 각각의 장치들 및 각 장치들의 요소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져서 하나의 질서 있는 전체로서 결합되는 것을 말한다. 균형은 무대 중앙을 무게의 중심으로 설정하여 그 좌우 공간에 설치된 장치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무게로 양분되는 것이다. 이때 양분되는 것들의 무게는 실제의 무게가 아니라 외관상의 무게, 곧 관객들에게 느껴지는 무게이다. 강조는 장치들을 상호 결합함으로써 오히려 특정한 한 장치에 초점을 두는 것이며, 장치들의 중요도 서열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강조는 장치의 위치와 배열에 의해서 결정된다.¹⁸⁾ 【작품 4】 am8 (오전8시)에서 3개의 사물들이 표현되었다. 왼쪽부터 가운데까지 펠릭이는 넥타이가 처음으로 눈에 들어오는데, 넥타이는 남성의 정장에 등장하는 것으로 치열한 자본주의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오른쪽에 짓눌려있는 가방이 보인다. 가방은 여행이나 소품을 갈 때 쓰이기도 하지만, 공중에 떠있는 아기의 손에 전철손잡이와 제목의 시간으로 미루어 볼 때 출근길이나 등굣길을 설명하기 위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본인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사물들은 어른의 행동을 아기로 대체되어 행하여지는 상황을 유추하는데 도움을 주기도하며, 비례에 맞지 않

18) 민병욱 지음, 「연극의 이론」, 서울:탑북스, 2012, p.180,184

는 사물들은 크기의 왜곡된 표현으로 소외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작품에서 사물이 왜곡된 표현으로 나타나는 효과로서 독일의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가 고안한 극작 기법인 소외효과(alienation effect, 疏外效果)와 맞는다고 생각하였다. 이 소외효과는 마르크스 이론을 극작에 적용한 것으로 친숙한 환경과 대상을 낯설게 보이게 함으로써 일련의 효과를 노리는 미학 전략이다. 소외 효과의 목적은 객관적 세계와의 거리두기를 통해 비판적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극적 환영을 깨뜨림으로써 무대 위의 사건에 대한 새롭고도 낯선 태도를 갖게 한다. 브레히트는 소외 효과로써 관객이 허구적 사건에 대해 거리감을 갖게 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도록 만들었다.¹⁹⁾ 이러한 효과에서 보이는바와 같이 본인의 작품에서 왜곡된 사물의 표현은 아기가 어른들의 행동을 하는 것을 표현함에 있어 현실과는 다른 시각으로 관람객에게 흥미를 갖도록 하여 비판적인 의식까지도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의 소외 효과는 미학적 이유에서보다는 최종적으로 사회 체계의 변화 곧 혁명을 위한 사회학적 이유에서 생겨난 것이다. 비예술적 현실을 오히려 예술화시켜서 관객들이 이미 길들여져 있는 관념들을 타파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외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범주로서 소외 효과는 지배자들의 관점으로 지배적 세계관을 폭로하는 것이다. 이것은 민중의 관점과 지배자들의 관점을 대비시켜서 지배자들의 관점이 지닌 허위성과 은폐된 이데올로기를 밝혀내는 것이다. 둘째, 미학적 범주로서 소외효과는 무대에서 관객들이 이미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는 바가 아닌 의외의 반응을 통해서 관객으로 하여금 기대치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사실을 인지하게 하는 기법이다.²⁰⁾

19) 김광철 지음, 장병원 엮음, 「영화사전= Film dictionary」, 서울:media2.0, 2004, p.192

본인작업에서 나타나는 사물들은 그대로의 오브제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생각하는 물체에 형태를 재현하여 구성되었으며, 재현된 사물은 아기와 이질감이 느껴지는 크기로 만들어져 낯설게 느껴진다. 【작품1】 애(愛)당에서 국회의원사당은 5명의 아기가 들어갈 수 있는 필요 만큼의 작은 크기이고 뿡망치는 아기가 들기조차 버거울 정도의 큰 크기로 표현되어졌다. 이는 관객에게 소외 효과를 가져다준다.

즉, 본인작품의 사물은 관람객에게 일상적 기억을 불러들여 장소성을 갖기도 하며, 사물의 비현실적인 비례는 낯선 장소로 받아들여 지기도하고, 비판적 사고로 유도하기도 한다.

20) 민병욱 지음, 「연극의 이론」, 서울:탑북스, 2012, p.214

3. 작품분석



【작품 1】 애(愛)당

【작품 1】 애(愛)당

크기 : 142x52x95(cm)

재 료 : FRP 우레탄도색 나무

제작 년도 : 2013

제작 방법 :

- 1) 전체적인 형태는 드로잉을 기본으로 하고, 이를 토대로 모델인 아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되어진 사진을 수집하여 정리한다.
- 2) 흙으로 제작된 작품을 석고와 F.R.P로 캐스팅한다.
- 3) 미리 제작한 안구를 삽입하여, 사포로 연마한다.
- 4) 안구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우레탄 도색한다.
- 5) 나무로 국회의사당의 건물을 단순화하여 만들고, 도색한다.
- 6) 만들어진 건물 세트 안에 아기의 형태를 배치하여, 고정한다.

내용 : 본 작품은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모습을 풍자하여 표현한 것이다. 간혹 TV를 통하여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몸싸움을 하는 장면을 보이곤 한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싸우는 일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부끄럽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국회의원들의 싸우는 모습을 아기들이 장난하는 모습으로 대체되어 표현하였으며, 이것은 마치 게임을 하는 듯하게 구성하였다. 나무로 만들어진 국회의사당은 실제의 건물의 비례에 비교하여 보았을 때 5명의 아기가 들어갈 수 있는 필요 만큼의 작은 크기로 표현되었고, 뽕망치는 아기가 들기조차 버거울 정도의 크기로 표현되어졌다. 이는 관객에게 소외효과를 가져다준다. 이 아기는 뽕망치를 들고 다른 아기를

때리려고 하는 포즈로 정중앙에 배치하였고, 그 옆에 아기는 이를 보고 즐겁게 웃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었다. 하지만 나머지 두 아기는 그 상황에 별 관심이 없는 듯이 보이도록 하였는데 뒤돌아 앉아있거나, 책상에 엎드려있는 채로 표현하였다. 건물의 형태를 똑같이 재현한 것은 아니지만, 둥근 돔을 보고 관람객들이 국회의사당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 작품의 배경이 입법기관이라는 것은 권력의 현실상황을 게임과 같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법이 형성되는 과정 자체와 규칙들은 법을 벗어나 있다는 풍자적 표현이었다. 본인은 이로써 정치적 형성과정과 규율들을 비판하고자 하였다.



【작품 2】 어떤소리

【작품 2】 어떤소리

크기 : 40x20x23 cm

재 료 : FRP 우레탄도색 오브제 음향기기

제작 년도 : 2013

제작 방법 :

- 1) 전체적인 형태는 드로잉을 기본으로 하고, 이를 토대로 모델인 아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되어진 사진을 수집하여 정리한다.
- 2) 흙으로 제작된 작품을 석고와 F.R.P로 캐스팅한다.
- 3) 미리 제작한 안구를 삽입하여, 사포로 연마한다.
- 4) 안구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우레탄 도색한다.
- 5) 이 형태에 오브제와 음향기기를 연결시키고, 결합한다.

내용 : 무색의 아기가 검은색의 클래식한 헤드셋을 하고, 얼굴을 한쪽으로 기울인 아기는 눈을 감은 채 팔을 피고 평온한 듯 보이도록 표현되었다. 본 작품을 보면, 아기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였다. 어떤 음악을 듣고 있는지 또는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헤드셋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소리가 있다. 중년의 남자들의 목소리인데, 자세히 들어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의 다그치며 대화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대화 내용은 이렇다. 비리와 관련된 질문들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2분정도의 반복적인 음성이 들린다.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남성의 목소리에서 들려오는 톤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헤드셋에서 흘러나오는 이 소리는 아기의 편안해 보이는 이미지와 반대되는

이미지이다. 헤드셋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을 들리게 함으로써 관객이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시선을 유도하여 본인이 비판하는 내용의 집중시키는 것이 목적이 있었다.



【작품 3】 바라보기

【작품 3】 바라보기

크기 : 40x18x23(cm)

재 료 : FRP 우레탄도색 나무 가죽천 형광등

제작 년도 : 2013

제작 방법 :

- 1) 전체적인 형태는 드로잉을 기본으로 하고, 이를 토대로 모델인 아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되어진 사진을 수집하여 정리한다.
- 2) 흙으로 제작된 작품을 석고와 F.R.P로 캐스팅한다.
- 3) 미리 제작한 안구를 삽입하여, 사포로 연마한다.
- 4) 안구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우레탄 도색한다.
- 5) 모델링한 크기에 맞춰 소파와 TV의 형태를 제작한다.

내용 : 본 작품은 약간의 설치적인 요소가 있다. TV와 소파 위에 놓인 아기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여 TV에서 나오는 조명이 아기의 얼굴에 비춰지도록 디스플레이 한다. 오래된 디자인의 TV와 소파는 조금은 고리타분하게 보이도록 제작되었다. 아기가 TV를 시청하고 있는 듯 보이는 형상의 작품은 자세히 보면, 팔짱을 낀 채 눈을 감고 있다. 자는 것인지 잠시 눈을 감은 것인지 모르는 표정은 기분을 알 수 없고, 모니터를 마주한 채 소리 없이 묵상에 잠겨있다. 모니터에서 아기에게로 비춰지는 파란빛은 우리가 밤에 불을 끄고 시청하던 것을 떠올리게 하였다. 이 빛은 안정감과 강한 이성적 판단을 요구되는 색이다. 또한 거울처럼 다른 세계를 상징화되어 어른들의 세계를 냉철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였다.



【작품 4】 am8 (오전8시)

【작품 4】 am8 (오전8시)

크기 : 22x49x72(cm)

재 료 : FRP 락카페인트 마천석

제작 년도 : 2013

제작 방법 :

- 1) 전체적인 형태는 드로잉을 기본으로 하고, 이를 토대로 모델인 아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되어진 사진을 수집하여 정리한다.
- 2) 흙으로 제작된 작품을 석고와 F.R.P로 캐스팅한다.
- 3) 미리 제작한 안구를 삽입하여, 사포로 연마한다.
- 4) 안구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우레탄 도색한다.

내용 : 본 작품의 제목은 오전8시를 의미한다. 사회의 규칙은 때로 사람들을 지치게 한다. 버스나 지하철 안이 출근 혹은 등교시간에 사람들로 꽉 끼어있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표현되어진 바라보는 시점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모습처럼 아기의 얼굴은 크고, 바닥부분의 발은 작게 표현되어 전체적 구도가 역삼각형으로 구성되어졌다. 아기와 함께 배치되어있는 물건들은 넥타이, 가방은 다양한 삶을 짐작하게 하였다. 바닥에서 발이 떠 있는 아기의 한 손에는 지하철을 연상하게 하는 손잡이가 쥐여있다. 중앙에 배치되어진 아기는 휘날리는 넥타이에 어깨가 가려지고, 그 옆으로 가방을 매고 있는 아기가 사람들 틈에 밀려 밀착된 모습이다. 표현된 3개의 사물들 중 넥타이는 남성의 정장에 등장하는 것으로 치열한 자본주의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가방은 여행이나 소품을 갈 때 쓰이기도 하지만, 공중에 떠있는 아기의 손에 전철손잡이와 제목의 시간으로 미루어 볼 때 출근길이나 등굣길을 설명하기 위

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작품에서 표현된 사물은 현실과 다르게 과장됨으로써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하기도 하고, 그 장소를 도출 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었다. 사물은 관람객에게 일상적 기억을 불러들여 장소성을 갖기도 하며, 사물의 비현실적인 비례는 낯선 장소로 받아들여 지기도하여, 비판적 사고로 유도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힘들게만 보일 수 있는 이 상황을 아기의 모습으로 표현됨으로써 관람객으로 하여금 미소를 자아내려 하였으며, 관객과 시선을 마주하게 하여, 관객도 이 상황과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여 나타낸 것이었다.



【작품 5】 in the mirror

【작품 5】 in the mirror

크기 : 23x25x30(cm)

재 료 : FRP 에나멜도색 거울

제작 년도 : 2012

제작 방법 :

- 1) 전체적인 형태는 드로잉을 기본으로 하고, 이를 토대로 모델인 아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되어진 사진을 수집하여 정리한다.
- 2) 흙으로 제작된 작품을 석고와 F.R.P로 캐스팅한다.
- 3) 미리 제작한 안구를 삽입하여, 사포로 연마한다.
- 4) 안구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우레탄 도색한다.
- 5) 미리 제작한 망원경과 함께 디스플레이 한다.

내용 : 흑인아기가 거울을 마주하고 손을 맞댄 채 한곳을 응시 하고 있는 형상으로 표현 되었다.

실제 아기들은 거울에 비친 모습을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보는 것처럼 신기해하는 것을 볼 수 가있다. 거울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기도 하지만 만 아기들이 상상의 세계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 작품을 감상할 때 가까이 다가가서 관찰하게 되면서 그 거울 안에 시선을 같이 하게 되기도 하였다. 여기서 아기에게 거울 속은 현실과는 다른 세계를 의미하며, 그 세계의 시선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인은 이런 행동을 표현한 작품에서 비춰진 그 세계를 아직 아기가 닿지 않은 세계, 어른들의 세계라고 보았고, 이는 아기가 문화적·인종적 편견 이라는 현실에 놓일 것임을 암묵적으로 말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관람객도 그 거울 안에 비춰지는 것은 그들도

그 세계와 무관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인종적 차별은 앞에서 언급했던 문화적 모순에 대한 사회적 관점의 변화를 유도하려 한 것이었다.



【작품 6】 바라본다는 것 II

【작품 6】 바라본다는 것 II

크기 : 45x25x24(cm)

재 료 : FRP 에나멜도색 PVC파이프 볼록렌즈

제작 년도 : 2011

제작 방법 :

- 1) 전체적인 형태는 드로잉을 기본으로 하고, 이를 토대로 모델인 아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되어진 사진을 수집하여 정리한다.
- 2) 흙으로 제작된 작품을 석고와 F.R.P로 캐스팅한다.
- 3) 미리 제작한 안구를 삽입하여, 사포로 연마한다.
- 4) 안구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우레탄 도색한다.
- 5) 미리 제작한 망원경과 함께 디스플레이 한다.

이 작품은 흑인아가가 턱을 받치고, 한쪽 눈을 감은 채 망원경 렌즈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형상으로 표현되었다. 이 작품은 성인의 키에 맞춘 높이에 두어 관객과 시선을 마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망원경을 통해 아기의 눈을 보는 것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할 때 상대방을 의식하고, 경직되는 심리를 이용하고자 하였으며, 표현되어진 아기의 눈은 햇바닥을 내민 채 망원경의 구멍으로 관객들 또는 확대하여 사회를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한 것이다. 사회는 곳곳을 통해 관찰하고, 관찰을 당하는 시점에 놓이게 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관찰되어진다는 것은 숨기고 싶은 치부까지도 들켜버리는 것이다. 이는 치욕스럽기도 하며, 두려움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작품 7】 Hi 힐

【작품 7】 Hi 힐

크기 : 200x80x100(cm)

재 료 : FRP 우레탄도색

제작 년도 : 2013

제작 방법 :

- 1) 전체적인 형태는 드로잉을 기본으로 하고, 이를 토대로 모델인 아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되어진 사진을 수집하여 정리한다.
- 2) 흙으로 제작된 작품을 석고와 F.R.P로 캐스팅한다.
- 3) 미리 제작한 안구를 삽입하여, 사포로 연마한다.
- 4) 안구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우레탄 도색한다.
- 5) 구두의 형태도 제작방법 1,2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 사포로 연마하고 우레탄 도색한다.

내용 : 성인 한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제작된 빨간 하이힐을 신고 있는 아기의 형상으로 표현되었다. 실제 아기들은 가장 가까운 엄마를 보며 자라난다. 이상향이 되어버린 엄마의 신발을 신어보게 되는 경험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어른의 키보다 더 크게 만들어진 아기는 전시를 하는 동안 입구에서 들어오는 관람객들의 포토존이 되었다.

이 아기는 할리우드 배우를 연상시키듯 한쪽 눈을 감고 윙크한 채, 입술을 내민 모습으로 형상화 하였다. 아기는 무성(無性)또는 중성으로 성별을 표현 하지 않았는데 성(性)은 사회에서 주어지는 역할이라고 판단되어 표현 하지 않았다. 단, 여기서 말하는 성은 생물학적인 것을 제외한 것이다. 무성의 아기는 사회적 관례를 벗어나 본질을 보려한 것이었다. 무성의 아기가 여성의 상

정인 하이힐을 신고 있다는 것은 지금은 성별을 알 수 없으나 그 후에 성이라는 틀 속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문화적 모순으로 인한 잘못된 관례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Ⅲ. 결 론

어른들의 사회는 부조리한 것들로 권력이 옹호되는 세상이다.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일들도 권력 앞에 놓이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감춰지고, 포장되어 사실화된다. 이러한 권력들은 국경분쟁까지도 일어나기도 하였는데 서로 지배적인 권력주체라고 주장하면서 인종적 차별을 낳기도 하였다.

예술은 그 시대의 환경에 따라 표현하여 사람들에게 예술가는 감정 표현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균형과 조화를 전달 하고자 하였다.

본인은 이러한 권력적 구조와 문화적 차별에 관하여 비판적 시선을 어른의 세계를 아기의 형태를 통한 풍자적으로 표현하여 사회를 다루고자 하였고, 작가는 일상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힘겨워 하는 사회인들의 모습을 풍자하기도 하여 관객과 공감대를 형성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르게 보기’라는 제목으로 전시된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서 사람사이에 불합리한 사회의 한 장면을 거리를 두고 보게 하고자 아기의 형태로 재현하였으며, 아기로 표현된 재현방식은 한국의 가면극의 형식과 비슷하였는데 연극에서 사용되는 소회효과를 언급하여 풀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에게 아기란 어른들의 비이상적인 사회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한 경험이었다. 아기라는 대상 속에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를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 대상을 변용 시킬 수 있는 소재로 다가왔으며, 자신에게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작품상에 있어서 본 연구자는 “아기의 형태를 통한 풍자적 표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비판의식을 나타내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전시주제인 ‘다르게 보기’라는 것보다 좁게 다루어진 것 같다.

작품에서 표현되는 내용이 사회모순에 대해 비판적인 것만 표출되어 좀 더 폭넓게 들어가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기게 되었다. 이러한 부분들은 연극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사람들의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례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작품의 내용을 더 심도 깊게 표현 하는 것을 향후 과제로 할 것이다.

참 고 도 판



(도판1) 김경민, 뚝!뚝!, 2011, acrylic on F.R.P, 22x72x37cm, p.9



(도판2) 탕즈강, 중국 동화, 2004 캔버스에 유채, 150×180cm, p.10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김은정 지음, 「연암 박지원의 풍자정치학」, 파주:한국학술정보, 2010
- 김광철 지음, 장병원 엮음, 「영화사전= Film dictionary」, 서울:media2.0, 2004
- 민병욱 지음, 「연극의 이론」, 서울:탑북스, 2012
- 박정자 지음, 「시선은 권력이다」, 서울:기과량, 2008
- 서연호 지음, 「한국 가면극 연구」, 서울:월인, 2002
- 신기철, 신용철 편저, 「새우리말 큰사전(하)」, 삼성출판사, 1987
- 안민수 지음, 「연극연출:원리와 기술」, 서울:집문당, 2000
- 유병선 지음, 「현대사회의 이데올로기와 한국」, 대전:이화, 2004
- 전경옥 지음, 「한국가면극 : 그 역사와 원리」, 서울 : 열화당, 1998
- 한명식 지음, 「예술을 읽는 9가지 시선 : 형태로 이해하는 문화와 예술의 본질」, 파주:청아, 2011

2. 번역본

- 도널드 폴슨 지음, 김옥수 옮김, 「풍자문학론」, 부산 : 지평, 1992
- 리드 하버트 지음, 임산 옮김, 「예술의 의미」, 서울: 에코리브르, 2006
- S.프로이트 지음, 홍성표 역 14, 「꿈의 해석」, 서울:삼성출판사, 1990
- 찰스 퍼니휴 지음, 고빛샘 옮김, 「아기심리보고서」, 웅진지식하우스, 2009
- 켈빈 S.홀 지음, 「프로이트 심리학 입문」, 안귀여루 옮김, 서울 : 巨岩, 1990

3. 국내 학술지논문

- 나지영, 박현주, 「흰색의 의미와 적용에 대한 기초 연구」, 한국 콘텐츠학회,

4. 기타

<김경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풀어낸 라이프 스토리>, CNB저널 제 239-240호, 2011.09.14

<<http://weekly2.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7383>>

<국회의원 하면 떠오르는 첫 이미지는 “싸움꾼”>, 시사저널:미디어리서치, 2013.01.16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9663>>

<中 화가 탕즈강 방한…‘꼬마로 표현된 잔혹 중국’>, 뉴시스통신사, 2008.02.1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3&aid=0001968339>>

ABSTRACT

A Study of Satirical Expression through the Forms of Infants

- ON THE BASIS OF MY WORK -

Song, Min Sun
Dept. of Sculpture
Graduated School of Sculptu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my works displayed under the title Different Point of View. My works satirically portray adults living in an absurd society through the world of infants. Social and satirical backgrounds are adopted as a method of theoretical analysis. Power and cultural prejudice is examined against the social background. The forms of mask drama and the work of artists employing satirical expression are examined and researched to study my work's satirical form. My work's satirical expressions are classified into four types: desire for power; cultural, racial prejudice; private daily life; along with adult greed, tough reality, and cultural differentiation which I try to criticize.

If analyzing the modeling features of my work, the hallmarks of the body can be divided by such elements as overstated proportion, asexuality, and color. The contrasting colors of black and white and large eyes underscore the characters' gaze. In the expressing of things,

alienation effects derived from theatrical method are analyzed, and their role is explained.

This dissertation aims to confirm my view of work by studying my own works, and make up for my works later. This study executed under the title A Study of Satirical Expression through the Forms of Infants consists of three chapters.

The purpose, content, and method of study of my work are explained in the Chapter 1 Preface. The background of this study and modeling features are analyzed respectively in Chapter 2. The problems caused by power and cultural prejudice as the work's social background are studied. The view of my own satire is examined in comparison with those of Korea's mask drama and other artists' works. The modeling features of the body and meaning expressed with black and white and eyes are described, and the purpose of production is studied and analyzed. My work is analyzed and arranged based on its modeling quality, and explained with a study method and an advanced method to be adopted in the Chapter 3 Conclusion.